



4월 5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22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 사업 희망자는 6월 18일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

전남도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2022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국비 공모사업을 6월 1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6월 18일까지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도 자체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2022년도 사업은 전국에서 1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는 개소 당 10억 원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사업 신청자격은 벼의 경우 연접한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이고, 엽채류·과채류·근채류는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다. 참여농가 5호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30% 이상 시행해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전원 납부해야 한다.

전남도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내년도 사업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 사업’ 전국 18개소 중 전국 최다인 8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 내 착공으로 조기 완공토록 하는 등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전국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